

| | |
|------|----------------|
| 세계 | 40 |
| 도시동향 | 2002년 2월 4일 |

HEADLINE NEWS

투명·청렴 행정 50년史: 성과와 비결을 담은 책자 발간 (싱가포르)

세계적으로 부패가 없고 투명하기로 정평이 난 싱가포르 공공행정의 비결과 성과를 담은 책자가 최근 발간되었다. 싱가포르의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50년에 걸친 싱가포르의 공공행정사(史)를 담은 이 책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싱가포르의 투명행정을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두려움도 특해도 물리치며(Without Fear or Flavor)」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책자는 싱가포르 행정이 어떻게 청렴성과 불편부당성을 지켜왔고, 성과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수되어 왔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정부가 어떻게 사회에 복지를 되돌려 주었는지에 대해 5개의 장(章)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전문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다.

(www.gov.sg)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시민참여형 깨끗한 가로 만들기 추진 (런던 : 해크니 자치구)

도시환경

- ② 크리스마스 카드·트리 재사용 추진 (맨체스터)
- ③ 가연성 쓰레기를 도로포장재로 재활용 (동경)
- ④ 전기자동차를 도입해 公用차량으로 활용 영국: 애버딘시)

도시교통

- 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앞부분에 충격완화장치 장착 의무화 (브뤼셀)
- ⑥ 택시호객행위 단속 및 심야교통서비스 확충 (런던)
- ⑦ 택시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상해)
- ⑧ 지하철에 자동加減速시스템 도입해 운행시간 단축 (런던)
- ⑨ 지하철역을 전시공간으로! (런던)

사회복지

- ⑩ 탁아·보육 중개서비스 제공 (일본: 미야자키시)

행재정

- ⑪ 市홈페이지에 「市長과의 대화방」개설 캐나다: 마크햄시)
- ⑫ 區報에 민간상업광고 게재해 재정적자 보충 동경: 墨田區)
- 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영화·TV드라마 촬영장소 마케팅 추진 (요코하마)

① 시민참여형 깨끗한 가로 만들기 추진 (런던: 해크니 자치구)

영국 런던의 해크니(Hackney) 자치구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청결수호자(Streetlead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행정기관이 거리환경불량 문제를 주민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데 있다. 청결수호자로 위촉된 주민은 재활용품 수거함 불량,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벽보 및 광고물 부착, 자동차 노상수리 행위, 차량 무단 방치 등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에 즉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청결수호자는 「당신의 거리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기」라는 활동지침서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거리 청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또한 청결수호자 스스로도 거리를 청소한다. 회의 및 활동 결과는 자치구의 격주간 신문인 「해크니 투데이」에 소개된다.

(www.hackney.gov.uk/living/index.html)

② 크리스마스 카드·트리 재사용 추진 (맨체스터)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시는 녹색정책과 재활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사용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하여 재사용·재활용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1월 20일까지 수거했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오는 어린이에게는 5파운드를 지급했다.

시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재사용(Reuse)하거나 재활용(Recycle)하도록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카드 수거함을 2월말까지 주요상가 등지에 비치해둘 예정이며, 수거한 카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뒤누구나 원하는 카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카드수거단체의 협조를 받아 내년도 선물포장 장식으로 카드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매년 약 14억 장의 카드가 경축일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www.manchester.gov.uk/news/2002/jan02/recycle.htm)

3 가연성 쓰레기를 도로포장재로 재활용 (동경)

일본 東京都 자치구 지역의 쓰레기중간처리를 담당해온 東京 23區 청소 일부사무소조합(清掃一部事務所組合)은 2002년 11월부터 쓰레기소각재를 용융(熔融)하여 감량하고, 용융 슬래그(Slag)를 노반재로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7년에 23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쓰레기 전량을 용융 슬래그로 만들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융 슬래그는 가연성 쓰레기소각재를 1,200℃의 고온에서 용융시킨 다음, 고체형태로 만든다. 이러한 공정을 통해 소각재의 부피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슬래그는 아스팔트 포장재의 원료인 모래의 대체물로 재활용할 수 있다.

都是 금년도 11월에 슬래그화시설을 첫 가동한 후, 8개 공장을 연이어 가동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매일 1,200톤 이상의 소각재를 슬래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23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소각재의 전량을 슬래그화할 계획이다. 또한 1개월에 1회 용출(溶出) 금속성분을 조사해 슬래그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都是 슬래그를 우선 구시정촌(區市町村)에 매각해 공공사업용 자재로 이용토록 하고, 민간에도 재활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6)

4 전기자동차를 도입해 公用차량으로 활용 (영국: 애버딘市)

영국 스코틀랜드의 애버딘(Aberdeen)市는 환경보호의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올해 6대의 전기자동차를 도입, 公用(公用)차량으로 이용키로 했다. 市는 우선, 승용차 1대, 밴 1대의 전기자동차를 1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특히, 밴은 청사간 우편물 수송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된 이 전기자동차는 시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www.aberdeencity.gov.uk/ACC_Data/news%20item/ppu_news_020121f.asp)

5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앞부분에 충격완화장치 장착 의무화 (브뤼셀)

최근 벨기에 브뤼셀市에서 열린 유럽 자동차산업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는 유럽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4만여명 중 2천여명이 보행자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자동차 규제 장치를 몇 가지 마련했다.

먼저, 보행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장치를 차량 전면(前面)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2002년부터 자동차 라이트 자동작동장치 장착을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03년 10월부터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라이트 자동작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4년 7월부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전면(前面)에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Frankfurter Rundschau, 2001. 11. 28)

6 택시호객행위 단속 및 심야교통서비스 확충 (런던)

영국 런던광역시는 최근 택시의 불법호객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런던광역시장은 불법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를 승차할 경우 바가지 요금을 물 수 있고,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불법호객행위를 하는 택시에 탑승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市는 이와 함께, 심야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심야버스요금을 할인하고, 심야버스를 18% 증차하며, 1일 교통카드를 심야버스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www.london.gov.uk/news/2002/012-1101.htm)

7 택시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상해)

중국 상하이(上海)시 택시관리처는 최근 택시운전자의 서비스수준을 '별의 개수'로 표시하고, 별 3~5개를 받은 약 4,000명의 운전자를 모범운전자로 공인했다. 이는 호텔의 등급을 별의 개수로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인민망 일본어판, 2002. 1. 8)

8 지하철에 자동加減速시스템 도입해 운행시간 단축 (런던)

2002년 1월 초 영국 런던 지하철 Central Line에 지하철의 가속 및 감속 스피드를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함으로써 驛間 운행시간을 최소화 하는 자동加減速시스템이 1월 초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사람에 의한 조작 때보다 시간당 평균 5분 가량 운행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이 단축되면 전동차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쏘노선에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출퇴근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런던 지하철 당국은 11명의 전동차 운전자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주당 평균 7,000마일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노동강도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전자를 추가 고용키로 했다.

(METRO, 2002. 1. 11)

9 지하철역을 전시공간으로!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지하철역에 예술작품을 전시해 출퇴근 승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Platform for Art」 프로그램이 2002년 1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먼저, 비용이나 훼손문제로 인해 사진 작품이 현재 전시되고 있다. 초대 작가는 미국 출신 정상급 사진작가 Bill Phelps로서, 클래식風의 발레 사진(왼쪽 사진)에서부터 헐리우드영화 스냅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Faustian Face' (오른쪽 사진)로 명명된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전시회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ww.thetube.com)



④ 탁아·보육 중개서비스 제공 (일본: 미야자키市)

일본 미야자키(宮崎)시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의뢰 회원)와 아이를 맡아 보육하려는 사람(보육 회원)을 상호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市는 이 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패밀리서포트센터'를 「미야자키市 일하는 부인의 집」 단체 내에 설치하고, 2002년 3월까지 회원 모집과 연수를 실시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市는 센터에 3명의 상담역을 배치, 보육을 의뢰한 주민과 보육을 희망한 주민들을 상호 연결해줄 수 있도록 했다. 사례금은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기준으로 아동 1명당 1시간에 600엔이며, 시간외는 700엔이다.

미야자키市가 2000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 1,501명 중 10.7%가 「아이를 맡기기를 원한다」, 53.8%가 「아이를 맡길 수도 있다」 고 응답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중앙정부 「일과 육아 양립지원 특별원조사업」의 보조를 받으며 추진중이며, 현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일본 전국에 151개가 있다.

(아사히신문, 2002. 1. 19)

④ 市홈페이지에 「市長과의 대화방」 개설 (캐나다: 마크햄市)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크햄(Markham)市는 지역사회의 미래상과 도시발전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市長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시민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市長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화방」을 市홈페이지에 개설했다. 市는 이를 통해 市행정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市는 市長과 시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위주의 市政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www.city.markham.on.ca/Markham/Channels/NewsCentre/newsreleases/dece)

區報에 민간상업광고 게재해 재정적자 보충 (동경: 墨田區)

일본 東京都 스미다(墨田)구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區가 발행하는 인쇄물에 민간상업광고를 본격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광고는 매월 3회 발행하는 구보(區報)와 민원관련서류를 넣는 봉투 및 區의 산업시책 등을 소개하는 안내책자에 게재하기로 하고, 2002년 말에 구청 내에 광고주 모집을 담당하는 '광고사업담당' 창구를 설치했다.

창구에서는 복지·교육·환경 리사이클 부서에서 사용하는 봉투와 구보(區報)에 게재할 광고내용을 접수하고, 관내 기업·상가를 대상으로 광고모집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광고영업도 한다. 광고료는 구보(區報)의 1면 상단에 세로 4.8cm×가로 5cm의 크기로 3회 게재하는 경우 20만엔이다. 區는 2002년도 광고료 수입을 약 500만엔으로 잡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5)

사진 및 동영상으로 영화·TV드라마 촬영장소 마케팅 추진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橫濱)시는 요코하마 관광컨벤션 등을 통해 영화·드라마 등의 야외촬영을 지원하는 필름커미션(FC)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市는 그동안 영화나 TV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야외촬영신청을 받으면 조건에 맞는 촬영장소를 구두나 문서로만 전해주었기 때문에, 촬영장소가 제작사 요구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市는 야외촬영후보지를 찍은 사진을 제작사에 제공해주기로 하고, 市에 등록된 209개의 상가·관광시설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DB화하고 있다. 市는 올 여름에 사진 DB가 수록된 CD를 제작사에 발송할 계획이다. 市는 앞으로 촬영후보지의 동화상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요코하마市는 올해 4월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개최되는 '로케이션 국제엑스포'에 참여해, 필름커미션 사업 및 관광정보를 소개하는 안내책자와 기자재 임대,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로케이션 가이드북을 배부할 계획이다. 요코하마市는 지난해 국제필름커미션협회에 가입한 바 있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6)